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등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한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세계경제 분절화 극복 및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필요성 강조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경제 핵심이슈 논의 -
- 삼성전자 등 프랑스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모색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7~8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동 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 프랑스 진출 한국기업 간담회 개최 및 민간 창업센터인 스타시옹 에프(F) 방문도 실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전망 세션에서 사회의 포용성 증진 및 성(性) 격차 해소를 통해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관점을 피력하며 여성 고용증진, 보수격차 완화 등 정책 시행을 권고하였다. 방 차관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고 성별 격차완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맞춤형 취업 등 한국사례를 회원국들에게 공유하였다.

방 차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극복을 위해 블록화·분절화 현상이 외교·안보 영역을 넘어 경제·무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위기 완화를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수석 이코노미스트(클레어 롬바델리) 면담】

방 차관은 6.8.(목) 클레어 롬바델리(Clare Lombardelli)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만나 한국경제전망, 중국경제 리오프닝 효과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장률 전망 하향은 중국 제조업 회복 지연과 반도체 수요둔화 등에 기인한 것이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성장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방 차관은 설명하였다. 롬바델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진출 한국기업 간담회 등】

방 차관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기업인 체류증 발급 지연, 유럽연합(EU) 환경규제 증가, 유럽연합 식품수출 기준강화 등 애로사항을 경청·논의하고, 향후 차관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 창업 인큐베이터인 스타시옹 에프(F)를 방문하여 벤처창업 정책 고도화방안도 모색하였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심현우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parksh20@korea.kr)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happyhoney@korea.kr)